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루카 10,42)



예수님은 친구가 많았어요. 그중에는 베타니아에서 살고 있던 삼 남매인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마르타는 집 청소를 하고, 예수님께 드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마르타는 마리아가 도와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디”라고 알려주세요.



이탈리아의 한 4젠 그룹의 경험담

어느 날 우리는 한 수도원을 방문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경당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경당을 나오기 전에 루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꼈어.”